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 고창 11월10일 착공!

고창신활력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부지 착공, 총 사업비 3500억 규모…동부건설 시공

전북 고창군에 들어서는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물류센터)가 오는 11월 10일 고창신활력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부지에서 착공식을 연다.

이번 사업은 고창군과의 투자협약 당시 3000억원 규모로 계획됐으나, 실시 설계를 맡은 무영건축의 최종 설계와 시공사인 동부건설의 시공 확정 과정에서 총 사업비 3500억 원 규모로 확대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를 통해 남부 지역의 원활한 물류·유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호남권 대규모의 첨단 물류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착공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

해 삼성전자 임원급 관계자, 고창출신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도 의원, 고창군의회 군의원 및 지역 기관·사회단체장과 주민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스마트허브단지는 18만1625㎡(축구장 25개 규모) 부지에 건립되며, 자동화 기술과 친환경 설비가 결합된 첨단 물류센터로 조성된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완공 후에는 500여 명의 직·간접 고용과 전북 서남권 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고창 스마트허브단지는 자동화를 기본으로 각 장비의 연동이나 유지

보수 등이 중요한 포인트다.

자연스럽게 로봇, 컨베이어 등 자동화 장비 기업들의 연쇄 투자와 이전까지 기대되고 있다. 또한 공사기간 시공사와 협력업체를 통한 ‘고창 관내 소비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지역에서 벌여들이 돈이 다시 지역 안에서 순환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경제에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심덕섭 군수는 “이번 착공이 고창군이 스마트 물류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임 기자

‘진남관’ 10년 만에 복원 완료…완공기념식 개최

여주시 총 195억 원 투입해 원형 복원·구조 안정성 확보

여주시는 호국충절의 상징이자 이순신 장군의 숨결이 깃든 국보 진남관의 해체보수 공사를 마무리하고 21일 진남관에서 완공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10년에 걸친 대규모 보수정비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시민과 함께 축하하고 진남관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남관은 1599년(선조 32년) 전라좌수영의 객사로 건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단층 목조건물로 400여 년의 세월 동안 여러 차례 보수를 거쳤다.

그러나 구조적 노후화로 인해 지난 2015년 12월부터 본격적인 해체·보수 정비 작업이 추진됐다.

이번 보수정비 사업에는 총 195억 원

이 투입됐으며 건물의 뒤통림과 지반침식 등 구조적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일제 강점기 이전의 원형 복원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기존 68개의 기둥을 70개로 원형 복원하고 지붕 기와 5만 4천 장을 전통 방식으로 정비하는 등 역사적 가치와 위용을 되찾았다.

앞서 지난 5월 30일 일반에 재개방된 이후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이번 완공 기념식은 여수 진남관이 ‘호국 역사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기념식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경과보고, 기념·축사,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기념수 식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웅장하게 복원된 진남관을 배

경으로 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는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정기명 여주시장은 “진남관 해체보수 완공을 발판 삼아 전라좌수영 동헌 일원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과 옛 성터거리 조성 등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진남관 일대를 명실상부한 역사문화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는 지난 9월 20일부터 10일 13일까지 실시한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주시 담당관은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며 친절한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를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우덕현 기자

주거 안정 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 공급확대

전주시가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청년만원주택인 ‘청춘★별채’의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시는 오는 11월 중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청춘★별채의 신규 입주자를 공개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상반기 모집 이후 이어진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지속적인 문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10월 한 달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퇴실 세대를 보수·정비해 재공급함으로써 입주 회전율과 공급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지난 2월 입주자 모집 당시 529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

년층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얻은 바 있어 이번 모집 역시 높은 참여가 예상되며 청년 주거 수요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 신규 모집 규모는 12호로 11월 초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입주 모집 공고할 예정이며, 자격과 소득·자산 검증을 거쳐 12월 중 입주자를 확정한다.

입주 기간은 2년이며, 무주택 요건 충족 시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또, 입주 중 결혼한 경우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 연장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청춘★별채는 시가 직접 공급·운영하는 만큼 전월세 사기 등의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대학교 주변 등 청년 거주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66호의 청춘★별채 입주 완료됐으며, 시는 오는 2028년까지 공급 규모를 총 210호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시는 앞으로 늘려갈 청춘★별채에 대해서는 신속 주택 위주로 공급해 청년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으로 주거하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김은주 국장은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리며 미래세대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주형 청년특화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청년 정착의 마중물이자 활력 넘치는 전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승민 기자

나눔의 전통 용진읍 10년째 사랑의 쌀 수확



완주군 용진읍이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랑의 쌀 베풀기 행사’를 지난 21일 용진읍 이장협의회(협의회장 민성팔)와 새마을부녀회(회장 신진순) 주관으로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이장과 부녀회장, 기관·사회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지속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며 풍년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사랑의 쌀 나눔행사’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앞에 쌀과 편지를 놓고 가던 익명의 독자가

의 따뜻한 선행에서 비롯됐다.

이에 감동한 용진읍 이장협의회가 2016년부터 동참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았으며, 지금까지 총 3만 3400kg의 백미를 흙물 어르신, 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 3,340세대에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약 1만 3000㎡(4,000여 평) 농지에 벼를 심어 4,000kg의 쌀 수확을 목표로 지난 6월 모내기를 진행했으며, 이날 수확한 벼는 건조·도정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사랑의 쌀 전달식’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상호 기자

사과 본고장 아오모리현 기술교류 추진

장수군, 기후변화 대응 품종 개발과 유통혁신을 위한 현장 중심 교류 추진



장수군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일본 아오모리현을 방문해 사과 산업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과 선진 유통체계를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행정, 의회, 전군사과 생산자협회 장수지부 관계자 등 29명이 참여해 장수사과 산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고자 현지를 찾았다.

방문단은 일본 내 최대 사과 생산지로 꼽히는 아오모리현의 농업시험장, 사과협회, 과수농가 등을 직접 찾아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배 기술 방향 △병해충 방제 및 왜화재배 기술 △유통·경매 시스템 △지방정부의 농가 지원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연수를 진행했다.

방문단은 히로사키 농산물 경매장과 후루사토 센터, 아오모리 사과협회 등을 차례로 찾아 일본 사과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의 관리체계를 현장에서 확인했다.

또한 하라다 종묘 회사와 나리타 선

생 과원을 방문해 신품종 육종과 묘목 관리 기술, 스마트 재배시스템 적용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이타야나기 정청을 방문해 지방정부의 사과 산업 육성정책과 민관 협력 모델을 공유하며, 장수군의 과수 정책 추진 방향에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방문단은 일본 내 사과 산업을 지원하는 지방정부와 민간 단체의 사과 관련 정책과 농가 지원사업을 직접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품종 육성, 스마트 재배 기술 도입, 품질 관리 체계 개선 등 장수군 사과 산업 발전에 접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이번 아오모리현 연수는 단순한 견학이 아닌, 장수사과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기 위한 현장 연구의 일환이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개발과 유통혁신을 통해 장수사과의 경

쟁력을 한층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20일 장수시장 특설무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훈식 장수군수, 최한주 장수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조방희 장수시장상인회장, 복태만 전북상인연합회장을 비롯해 관내 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 500여 명이 함께하며 성황을 이뤘다.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2014년부터 JTJV전주방송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어 온 프로그램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장수군이 후원하고 전북상인연합회와 장수시장상인회가 공동 주최했다.

행사는 개그맨 황기순의 사회로 유쾌하게 진행되었으며, 본선에 오른 9명의 참가자들이 열띤 무대를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장수군의 아들이자 홍보대사인 최재명, 미스김, 트윈걸스, 정연호 등 초청가수들의 신나는 공연과 함께 행운권 추첨이 진행돼 장수시장을 찾은 군민과 상인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조방희 상인회장은 “많은 군민들께서 전통시장을 찾아주시고 함께 즐겨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이번 시장가요제를 통해 장수시장이 활력과 웃음이 넘치는 공간으로 다시 한 번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상인이 함께 성장하는 전통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서주 기자

여수MBC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업무협약

지역 주민 참여 확대, 친환경 에너지 산업 활성화 협력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호인 여수문화방송 사장은 “지역 방송사로서 고흥군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활용해 주민 홍보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흥군은 균형 현안 및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6개 읍·면을 방문하며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우덕현 기자

무주군, 제5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됐다

무주군 무주읍이 유엔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에서 주관하는 ‘제5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Best Tourism Villages)’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 1월 ‘제5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공모에 도전장을 냈던 무주읍은 2월에 국내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현장답사 및 후보 마을 컨설팅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선 공모에 출품해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의 영예를 안았다.

무주군은 21일 무주군청 광장에서 황인홍 무주군수,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윤정훈 도의원을 비롯한 기관·사회

단체장과 군민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 축하 한마당’ 행사를 열어 기쁨을 함께 나눴다.

주민들은 “무주가 유엔에서 인정하는 관광마을이 됐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이를 계기로 세계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이어지기를 바란다”라며 “세계 최우수 관광지 주민다운 면모로 손님들을 맞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농악대 길놀이로 시작된 행사에서 황인홍 군수는 지난 17일 중국 후저우시에서 수상한 ‘관광마을 상패’를 무주읍 주민들을 대표해 신은주 무주읍 이장협의회장에게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이름을 올린 무주읍은 앞으로 유엔 세계관광기구

(UN Tourism) 공식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홍보 페이지 제작도 가능해져 인지도 향상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 유입 효과 등 관광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인홍 군수는 “세계적인 관광도시의 대열에 선 만큼 무주다운 관광 모델을 구축해 지역 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편,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유엔세계관광기구 주관 국제행사 유치, △최우수 관광마을 관련 상품 상설화, △관광 및 지역개발 관련 국내외 공모사업 참여 등 연계 사업 발굴 및 대외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서주 기자